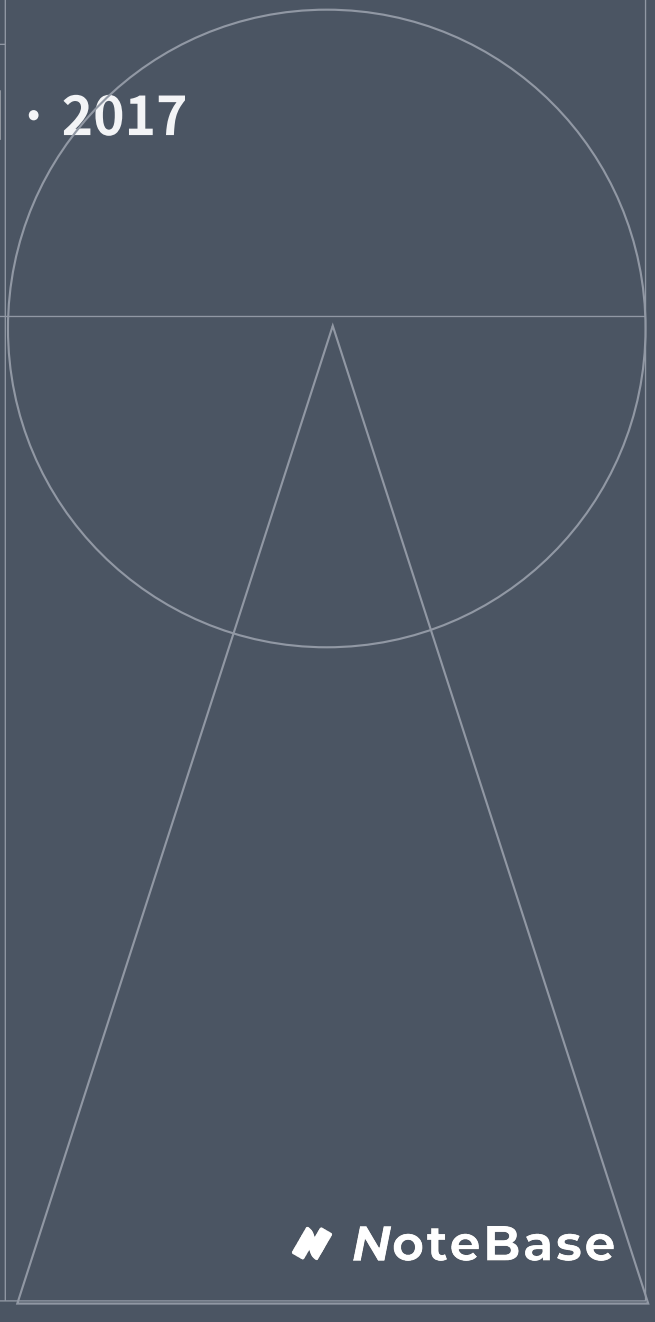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17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17

문 1.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① 하늘이 파랗다.
② 꽃이 예쁘다.
③ 아기가 웃다.
④ 건물이 높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용언을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행위를 나타내는 품사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현재형 관형사형으로 바꾸면 동사는 '-는'을 써서 '웃는'이 되지만, 형용사는 '파란·예쁜·높은'처럼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X
'파랗다'가 나머지와 다른 품사라는 판단은 틀리다. '파랗다'는 하늘의 색깔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며, 올바르게는 ②·④와 같은 품사이다.

② X
'예쁘다'가 나머지와 다른 품사라는 판단은 틀리다. '예쁘다'는 꽃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며, 올바르게는 ①·④와 같은 품사이다.

③ O
'웃다'는 아기가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나머지 '파랗다·예쁘다·높다'는 모두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품사가 다른 것은 ③이다.

④ X
'높다'가 나머지와 다른 품사라는 판단은 틀리다. '높다'는 건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며, 올바르게는 ①·②와 같은 품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네 단어가 모두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기본형이 '-다'로 끝난다는 공통점 때문에 같은 품사로 보기 쉽다. 그러나 '웃다'는 동작을, '파랗다·예쁘다·높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용언이 동작·행위를 나타내면 동사, 성질·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로 판단한다. 관형사형을 만들어 '-는'이 자연스러운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동사는 동작, 형용사는 성질·상태이다. '웃는'은 동사이고 '파란·예쁜·높은'은 형용사이다.

NoteBase

문 2. 다음 글의 앞에 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 한국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최근 들어 큰 체격의 서양 선수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수영 부문에서 세계 우승자가 나오더니,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는 서구 선수들이 독점해 온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한국 남녀가 동반 우승을 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① 수영과 스피드 스케이팅의 역사적 기원
② 한국과 서양의 생활환경의 차이
③ 세계 대회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과거 성적
④ 세계 빙상계의 세대교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접속어와 지시 표현을 단서로 앞 문단의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첫 문장의 '그러나'와 '과거와는 달리'는 앞에서 한국 선수들의 과거 성적을 다루었음을 보여 준다.

핵심 개념

역접의 접속어 '그러나'는 앞뒤 내용이 서로 대비됨을 나타낸다. 뒤 문단의 '최근 들어 한국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와 대비되는 앞 내용은 한국 선수들의 과거 세계 대회 성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수영과 스피드 스케이팅의 역사적 기원’은 종목의 유래에 관한 내용이므로, 한국 선수들의 과거와 최근 성적을 대비하는 첫 문장과 연결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역사적 기원’이며, 올바르게는 ‘세계 대회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과거 성적’이다.

② X
‘한국과 서양의 생활환경의 차이’는 생활환경을 비교하는 내용이므로, 뒤 문단의 한국 선수 성적 변화와 직접적인 대비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생활환경의 차이’이며, 올바르게는 ‘세계 대회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과거 성적’이다.

③ O
‘세계 대회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과거 성적’은 뒤 문단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 …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와 정확히 이어진다. 과거의 성적과 최근의 좋은 성적이 시간적으로 대비된다.

④ X
‘세계 빙상계의 세대교체’는 선수 세대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어서, 수영과 스피드 스케이팅을 함께 언급한 뒤 문단의 핵심인 한국 선수들의 성적 향상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세계 빙상계의 세대교체’이며, 올바르게는 ‘세계 대회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과거 성적’이다.

오답 포인트

뒤 문단에 수영과 스피드 스케이팅이 언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종목의 역사나 빙상계의 세대교체를 고르면 안 된다. 핵심 단서는 종목명이 아니라 ‘그러나’와 ‘과거와는 달리’가 만드는 과거 성적과 최근 성적의 대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에 올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는 문단 첫머리의 접속어와 지시 표현을 먼저 확인한다. ‘그러나’가 있으면 뒤 내용과 반대되거나 대비되는 내용을 찾고, ‘과거와는 달리’가 있으면 뒤의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과거 상황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그러나’는 대비, ‘과거와는 달리’는 과거와 현재의 변화이다.

NoteBase

문 3. 밑줄 친 지칭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위 :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평안하시지요?
② 아내 :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친정아버지께 다녀와요.
③ 동료 : 김 선생님, 내일이 제 선친의 칠순 잔칫날입니다.
④ 며느리 : 어머니, 얼마 전 아비가 승진을 했어요.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족 관계와 대화 상대에 맞는 지칭어를 구별하고, '선친'이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뜻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칭어는 대화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이르는 말이다. '장모님'은 아내의 어머니, '친정아버지'는 결혼한 여성이 자기 친정의 아버지, '선친'은 남에게 이미 세상을 떠난 자기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비'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남편을 가리킬 때 쓰는 전통적인 지칭어로 쓰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위가 장인에게 아내의 어머니를 가리켜 '장모님'이라고 한 것은 알맞다.
② O —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친정의 아버지를 '친정아버지'라고 가리킨 것은 알맞다.
③ X — '선친'은 이미 세상을 떠난 자기 아버지를 뜻하므로 앞으로 열릴 칠순 잔치를 말하는 상황에 쓸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제 선친의 칠순 잔칫날'이며, '제 아버지의 칠순 잔칫날'로 고쳐야 한다.
④ O —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남편을 '아비'라고 가리킨 것은 전통적인 친족 지칭어의 쓰임에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의 '선친'을 단순히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로 이해하면 틀리기 쉽다. '선친'에는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가 포함되므로 생존한 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말할 때는 쓸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족 지칭어 문제에서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가리키는 사람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단어 자체에 생존 여부와 같은 제한이 포함되는지 판단한다. 특히 '선친'이 나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가리키는 상황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선친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생존한 아버지는 '아버지'이다.

NoteBase

문 4.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그런 예는 동서고금의 역사에 수없이 많다.

> (㉠) 서울은 언제부터 서울이었을까? 우리가 눈으로 보며 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거대 도시 서울은 도대체 언제 태어난 것일까? 도시가 태어나다니? 우문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 그러나 도시도 분명히 태어나고 발전해 영화를 누리는가 하면, 쇠락의 길을 걷다가 끝내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 인도차이나 밀림 속의 앙코르와트가 그렇고, 아메리카 대륙 잉카와 마야 문명의 여러 도시들이 그러하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삽입 문장의 지시어가 가리키는 앞 내용과 뒤 문장의 전개 방식을 함께 살펴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시어 '그런'은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런 예는 수없이 많다'는 일반적인 설명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넘어가게 하는 예고 문장이므로, 뒤에 실제 사례가 이어지는 위치에 놓여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 앞에는 '그런 예'가 가리킬 내용이 없다. 틀린 위치는 (ㄱ)이며, 올바르게는 도시가 태어나고 발전하다가 쇠락하여 사라지기도 한다는 설명 뒤인 (ㄷ)에 넣어야 한다.

② X
(ㄴ) 앞에는 도시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묻는 내용과 '도시가 태어난다니?'라는 의문만 있을 뿐, '그런 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틀린 위치는 (ㄴ)이며, 올바르게는 도시의 생성·발전·쇠락·소멸을 설명한 뒤인 (ㄷ)에 넣어야 한다.

③ O
(ㄷ) 앞에서는 도시도 태어나고 발전하며 쇠락하여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삽입 문장의 '그런 예'가 바로 이 내용을 받고, 뒤의 앙코르와트와 잉카·마야의 여러 도시가 그 구체적인 사례로 이어지므로 문맥이 가장 자연스럽다.

④ X
(ㄹ)은 앙코르와트와 잉카·마야 도시의 사례가 모두 제시된 뒤이다. '그런 예는 수없이 많다'는 문장은 사례를 예고한 다음 '앙코르와트가 그렇고'로 이어질 때 결속이 가장 긴밀하므로, 사례 뒤인 (ㄹ)이 아니라 사례 앞인 (ㄷ)에 넣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그런'이 앞 문장을 받을 수 있는지만 보면 (ㄹ)도 가능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삽입 문장의 '예는 수없이 많다'와 다음 문장의 '앙코르와트가 그렇고 … 여러 도시들이 그러하다'가 예고와 열거의 관계를 이루므로 (ㄷ)이 가장 적절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삽입 문장에 지시어가 있으면 먼저 앞 문장에서 그 지시 대상이 분명한지 확인하고, 이어서 뒤 문장이 삽입 문장을 설명·예시·반박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문항은 '도시의 소멸이라는 일반 진술 → 그런 예가 많다는 예고 → 구체적 도시의 열거'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시어는 앞 내용을 받고, '예가 많다'는 표현은 뒤의 사례 열거를 예고한다.

NoteBase

문 5.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는 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處理)했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신장(伸張)되었다.
③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산(擴散)되고 있다.
④ 운영 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성공적이었다고 척결(剔抉)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뜻과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자어의 쓰임은 괄호 속 한자의 뜻이 문장 속 대상 및 서술 내용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리(處理)는 일을 맡아 해결함, 신장(伸張)은 세력이나 권리 등이 늘어나거나 넓어짐, 확산(擴散)은 널리 퍼짐, 척결(剔抉)은 나쁜 요소를 도려내어 없앰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처리(處理)는 일을 맡아 해결하거나 마무리한다는 뜻이므로, 일을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표현은 적절하다.
② O — 신장(伸張)은 세력·권리 등이 늘어나거나 넓어지는 것을 뜻하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다는 표현은 적절하다.
③ O — 확산(擴散)은 어떤 현상이나 영향이 널리 퍼지는 것을 뜻하므로,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성공적이었다고 척결했다'이다. 척결(剔抉)은 부정이나 폐단처럼 나쁜 요소를 없앤다는 뜻이므로 대회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나타낼 수 없다. 올바르게는 '운영 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척결을 단순히 '결론을 내리다'나 '평가하다'의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척결은 반드시 없애야 할 부정적 대상을 목적어로 취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괄호 속 한자의 기본 뜻을 먼저 떠올리고, 그 동사가 문장 속 목적어나 주어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제거의 뜻을 가진 말이 판단·평가의 문맥에 쓰이면 부적절한 표현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처리는 해결, 신장은 확대, 확산은 퍼짐, 척결은 나쁜 것의 제거이다.

NoteBase

문 6.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회 생물학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의 사회적 행동의 진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 ) 사회 생물학 연구의 중심에 놓인 질문은 사회적 행동의 진화 경로에 관한 것이다.

① 그럼에도 불구하고
② 그러나
③ 하지만
④ 그리고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알맞은 접속 표현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그리고'는 앞의 내용에 뒤의 내용을 이어 덧붙이는 첨가·나열의 접속 표현이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지만'은 앞뒤 내용이 서로 어긋나거나 대립할 때 쓰는 역접 표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앞의 사실에서 예상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 올 때 쓰는 역접 표현이다. 이 문맥에는 대립이 없으므로 틀리며, '그리고'로 고쳐야 한다.
② X — '그러나'는 앞뒤 내용을 대조하는 역접 표현이다. 뒤 문장은 앞 문장을 반박하지 않고 연구의 중심 질문을 추가하므로 틀리며, '그리고'로 고쳐야 한다.
③ X — '하지만'은 앞 문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을 때 쓰는 역접 표현이다. 두 문장은 사회 생물학에 관한 정보를 차례로 제시하므로 틀리며, '그리고'로 고쳐야 한다.
④ O — '그리고'는 사회 생물학의 연구 대상을 설명한 앞 문장에 그 연구의 중심 질문을 덧붙이는 첨가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뒤 문장이 새로운 정보를 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이 전환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라도 앞 문장을 부정하거나 대조하지 않고 같은 주제의 설명을 이어 가면 역접이 아니라 첨가 관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괄호를 기준으로 뒤 문장이 앞 문장을 반박하는지, 같은 방향의 정보를 더하는지 확인한다. 반박·대립이면 역접 표현을, 같은 방향의 추가 설명이면 '그리고'와 같은 첨가 표현을 선택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대립은 '그러나·하지만', 정보 추가는 '그리고'이다.

문 7.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선의 정원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서울 북악산 기슭에 있는 칠궁의 후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후원은 사실은 정원이 아니다. 원래는 산의 일부였던 것이 담 안으로 들어와서 칠궁의 땅에 포함된 것일 뿐이다. 굳이 이 후원에서 ( )인 것을 찾는다면,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담과 땅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가져다 놓은 몇 개의 돌뿐이다.

① 인공적
② 근대적
③ 자연적
④ 사회적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제시된 대상의 성격을 파악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공적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거나 손을 더한 성격을 뜻한다. 자연적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루어진 성격이며, 근대적은 시대적 성격을, 사회적은 사람들의 관계나 공동생활과 관련된 성격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담과 땅이 맞닿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 돌을 가져다 놓은 행위에는 사람의 의도와 손길이 개입되었으므로 '인공적'이 알맞다.
② X — '근대적'은 근대의 시대적 특성을 띤다는 뜻이지만, 제시문에는 특정 시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근대적'이 아니라 '인공적'이라고 해야 한다.
③ X — 후원의 산과 땅은 본래부터 있던 자연의 일부이지만, 빈칸 뒤에서 가리키는 돌은 다른 곳에서 사람이 가져다 놓은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이 아니라 '인공적'이라고 해야 한다.
④ X — '사회적'은 사람들의 관계나 공동생활과 관련된 성격을 뜻하지만, 이 돌은 담과 땅의 접촉을 막으려고 사람이 배치한 물건이다. '사회적'이 아니라 '인공적'이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후원 전체가 산의 일부라는 앞부분만 보면 ③ '자연적'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빈칸 바로 뒤의 '다른 곳에서 가져다 놓은'이라는 표현은 몇 개의 돌만 사람의 손으로 배치되었음을 보여 준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뒤에서 해당 대상을 설명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사람이 만들거나 옮기거나 배치한 대상이면 '인공적', 본래 그대로 존재한 대상이면 '자연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람이 가져다 놓은 돌은 인공적이고, 본래 산의 일부였던 후원은 자연적이다.

NoteBase

문 8. 다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한글 맞춤법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① 바느질
② 부수입
③ 소나무
④ 여닫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끝소리가 'ㄹ'인 말이 다른 말과 결합할 때 'ㄹ' 소리가 탈락하면, 그 탈락한 소리를 표기하지 않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ㄹ' 탈락 표기는 본래 끝소리가 'ㄹ'인 말과 다른 말이 결합한 형태에서 실제 'ㄹ' 소리가 나지 않을 때 적용한다. 따라서 각 단어를 결합 전 형태로 되돌려 보고, 앞말에 있던 'ㄹ'이 결합 과정에서 탈락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바느질'은 '바늘+질'에서 '바늘'의 'ㄹ' 소리가 탈락한 형태이므로 규정에 해당한다.
② X — '부수입'은 '부(副)+수입(收入)'으로 이루어진 말로, 끝소리가 'ㄹ'인 앞말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한 형태가 아니다. 틀린 판단은 '부수입'을 이 규정의 적용 예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말이다.
③ O — '소나무'는 '솔+나무'에서 '솔'의 'ㄹ' 소리가 탈락한 형태이므로 규정에 해당한다.
④ O — '여닫이'는 '열+닫이'에서 '열'의 'ㄹ' 소리가 탈락한 형태이므로 규정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발문이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부정형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부수입'을 '불+수입'처럼 잘못 분석하면 'ㄹ' 탈락의 예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구성은 '부(副)+수입(收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단어를 결합 전 형태로 분석한 뒤, 앞말의 원래 끝소리가 'ㄹ'인지와 결합한 말에서 그 'ㄹ' 소리가 실제로 탈락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발문의 긍정·부정 여부를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바늘+질→바느질, 솔+나무→소나무, 열+닫이→여닫이는 'ㄹ' 탈락이고, 부+수입→부수입은 'ㄹ' 탈락이 아니다.

NoteBase

문 9. ㉠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숨 쉴 공기와 마실 물, 그리고 먹을 음식이다. 숨 쉴 공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5분 이상을 살 수 없으며, 마실 물이 없으면 5일을,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으면 5주를 넘기기 어렵다. 이 세 가지는 생존을 위한 (㉠)이다. 이것이 충족되면 '생존'의 차원을 넘어 '삶'을 위한 조건인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문명의 (㉡)(을)를 누리는 문화생활을 찾게 된다.

㉠	㉡
① 필요조건(必要條件)	혜택(惠澤)
② 요구수준(要求水準)	특수(特需)
③ 반대급부(反對給付)	특혜(特惠)
④ 충분조건(充分條件)	혜량(惠諒)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따라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구별하고, '혜택'의 뜻에 맞는 단어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필요조건: 어떤 결과가 성립하는 데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조건: 그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결과가 성립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혜택: 제도·문명·환경 등으로부터 얻는 이익이나 도움이다.
공기·물·음식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들만 갖추었다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삶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공기·물·음식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필요조건'이고, 문명으로부터 누리는 이익은 '혜택'이므로 문맥에 모두 맞는다.
② X — '요구수준'은 요구되는 정도나 기준을 뜻하므로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문맥에 맞지 않는다. 또한 '특수'는 특별히 다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지 문명에서 얻는 이익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필요조건—혜택'이다.
③ X — '반대급부'는 어떤 행위나 급부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이익을 뜻하므로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를 가리킬 수 없다. '특혜'도 특정 대상에게 특별히 주는 혜택이므로 모든 사람이 문명에서 누리는 일반적인 이익이라는 문맥과 다르다. 올바르게는 '필요조건—혜택'이다.
④ X — 공기·물·음식이 충족되어도 쾌적한 환경과 여유 있는 마음까지 자동으로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혜량'은 남의 사정을 헤아려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므로 문명으로부터 누리는 이익을 나타내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필요조건—혜택'이다.

오답 포인트

'꼭 필요하다'는 표현만 보고 그 조건이 결과를 완성한다고 생각하면 '충분조건'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공기·물·음식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조건일 뿐, 그것만으로 문명생활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혜택·특혜·혜량'은 형태가 비슷하지만 뜻과 쓰임이 서로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없으면 결과가 성립하지 않는다'이면 필요조건이고, '그것만 갖추면 결과가 성립한다'이면 충분조건이다. 빈칸 어휘는 주변 표현과 결합해 자연스러운 뜻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없으면 안 되는 것은 필요조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충분조건이다. 문명에서 얻는 이익은 '문명의 혜택'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른 문명과 같이 한반도에도 수준 높은 문명과 다양한 형태의 토론이 존재했지만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토론을 학문의 한 분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절대 왕정을 오랫동안 유지하였기 때문에 토론이 민중들에게 교육 방법으로나 정치적 도구로 기능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한국 역사에서도 토론이 활발했다는 증거가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다.
>
> 정치 토론뿐 아니라 종교적, 이념적, 정책적 토론의 역사에 관한 기록은 풍부하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불교 종파들 간의 논쟁은 돈오돈수 이론과 돈오점수 이론으로 나뉘어 지금도 토론이 계속되고 있으며, 척화파와 강화파의 토론 및 십만양병설에 대한 찬반 토론 등은 정책 토론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① 한국 역사에서 활발한 토론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많이 있다.
② 불교 종파들 간의 논쟁은 한국 토론 역사의 한 증거이다.
③ 한반도에서는 절대 왕정 기간이 길어 정책 토론의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④ 한반도에도 다양한 형태의 토론이 존재했으나 학문의 한 분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직접 드러난 사실과 선지의 표현이 일치하는지, 특히 '토론이 정치적 도구로 기능하기 어려웠다'는 내용과 '정책 토론의 기록이 풍부하다'는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용 일치 판단은 선지의 핵심 서술어와 범위를 제시문의 대응 문장과 대조하는 독해 방식이다. 이 글은 한반도에도 다양한 토론이 존재했으나 토론이 독립된 학문 분야로 인식되지는 않았고, 절대 왕정으로 인해 토론이 민중의 교육 방법이나 정치적 도구로 기능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토론의 역사적 기록 자체는 풍부하다고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제시문은 한국 역사에서도 토론이 활발했다는 증거가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고, 여러 분야의 토론 기록이 풍부하다고 설명한다.

② O — 고려 시대 불교 종파 간 논쟁을 돈오돈수 이론과 돈오점수 이론의 대립으로 제시하므로, 불교 종파 간 논쟁은 한국 토론 역사의 한 증거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정책 토론의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이다. 제시문은 절대 왕정 때문에 토론이 민중의 교육 방법이나 정치적 도구로 기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을 뿐, 정책 토론의 기록은 풍부하며 척화파와 강화파의 토론, 십만양병설 찬반 토론 등이 그 표본이라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절대 왕정 기간이 길어 토론이 민중의 교육 방법이나 정치적 도구로 기능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책 토론의 기록과 사례는 풍부하다'이다.

④ O — 제시문 첫 문장에서 한반도에도 수준 높은 문명과 다양한 형태의 토론이 존재했지만,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토론을 학문의 한 분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고 밝힌다.

오답 포인트

③은 '토론이 정치적 도구로 기능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을 '정책 토론의 사례 자체가 드물었다'는 뜻으로 바꾼 선지이다. 토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와 토론 기록의 존재 여부를 혼동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단정하는 대상이 '기능'인지 '존재·기록'인지 먼저 구분한 뒤, 제시문의 같은 대상과 서술어를 직접 대응한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의 범위를 임의로 넓혀 '사례가 없다'로 해석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사회적 기능은 제한적, 토론의 기록과 사례는 풍부하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 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 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 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① 인간이 소비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풍자하고 있다.
② 인간이 완벽한 생산의 주체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
③ 인간이 소비의 객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④ 인간이 생산의 주체로 부각되는 과정을 치밀하게 논증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쓰인 질문, 대비, 직접 호명 등의 표현 방식과 글쓴이가 비판하는 대상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판적 서술은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당신'에게 연속적으로 질문하고, 생산자인 식물과 소비자인 동물을 대비하며, 인간이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급기야 소비의 객체로 전락한 현실을 비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글은 인간이 소비 주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풍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최대의 소비자', '소비의 주체'라고 규정한다. 틀린 표현인 '소비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은 '소비의 주체를 넘어 소비의 객체로 전락함'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비판 대상은 글쓴이 개인의 과거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의 인간과 현실이다. 틀린 표현인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는 '인간이 생산의 책임을 잊고 소비에 치우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마지막 문장에서 인간이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더 나아가 '소비의 객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직접 지적한다. 이는 인간이 소비의 객체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므로 제시문의 서술 방식과 내용에 가장 잘 맞는다.
④ X — 글은 인간이 생산의 주체로 부각되는 과정을 논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생산은 식물이 만든 것을 소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인간을 진정한 생산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생산의 주체로 부각되는 과정'은 '생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비의 객체로 전락한 현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소비 주체 역할을 다하지 못함', ②의 '자신', ④의 '생산의 주체로 부각'은 모두 제시문의 핵심 진술과 어긋난다. 특히 글에서 인간을 '소비의 주체'라고 한 부분만 보고 ①을 고르면 안 된다. 글쓴이의 최종 비판은 인간이 그보다 더 나아가 '소비의 객체'로 전락했다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 방식 문항에서는 먼저 질문, 대비, 호명 같은 표현 장치를 확인한 뒤, 결말에 제시된 글쓴이의 평가와 각 선지의 주체·대상·방향이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식물은 생산자, 인간은 소비의 주체를 넘어 소비의 객체라는 대비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2.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토론을 하게 된 배경과 토론의 논제를 소개한다.
② 참가자들이 골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안배한다.
③ 토론자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도록 주의를 환기한다.
④ 토론자들의 논거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토론 사회자의 역할 가운데 공정한 진행에 해당하는 것과 중립성을 벗어나는 행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토론 사회자는 토론의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논의를 원활하게 이끄는 사람이다. 토론의 배경과 논제를 소개하고, 발언권을 고르게 배분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토론자의 논거를 직접 반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 중립성을 잃게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토론의 배경과 논제를 소개하는 것은 참여자와 청중이 논의의 맥락과 쟁점을 이해하도록 돕는 사회자의 역할이다.
② O — 참여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고르게 배분하는 것은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회자의 역할이다.
③ O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논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거 중심의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회자의 역할이다.
④ X — '토론자들의 논거를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다'는 부분은 사회자의 중립적 역할에 어긋난다. 올바르게는 토론자들의 논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쟁점을 명확히 하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앞부분인 '논거를 정리한다'는 적절하므로 문장 전체를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뒤의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다'가 사회자의 중립성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틀린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자의 행동이 토론의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라면 적절하다. 특정 입장을 지지·반박하거나 사회자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부적절하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사회자는 공정하게 소개·배분·정리하고, 자기주장은 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뚝이'의 말하기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

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극대화하였다.
②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조롱하였다.
③ 양반 삼 형제와 원만하게 대화하기 위해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④ 역설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고전 지식을 자랑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말뚝이가 말의 중의성과 익살을 활용해 양반을 조롱하고 상황을 주도하는 말하기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언어유희는 말의 소리나 의미의 중의성을 활용하여 웃음을 만드는 표현이다. 풍자적 말하기에서는 겉으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의도와 효과는 상대를 비꼬거나 조롱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말하기 태도는 표현의 겉모양뿐 아니라 발화의 맥락, 의도, 상대의 반응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말뚝이는 '나오신다야', '계신', '삼 형제분'과 같은 높임 표현을 겉으로 사용하지만, 그 내용으로 양반을 희화화한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극대화하였다'는 부분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겉으로 공손한 형식을 취하면서 양반에게 모욕이 되는 풍자를 극대화하였다고 해야 한다.
② O — 말뚝이는 '양반'을 '양'과 '반'으로 나누어 엉뚱하게 풀이하고, 양반들이 항의하자 벼슬 이름을 익살스럽게 늘어놓으며 말을 바꾼다. 이러한 언어유희와 재치 있는 응수로 양반들을 속이고 춤추게 하면서 대화와 상황을 주도하므로 가장 적절하다.
③ X — 정중한 높임 표현이 쓰인 것은 맞지만, 말뚝이의 목적은 양반 삼 형제와 원만하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위와 권위를 조롱하는 데 있다. '원만하게 대화하기 위해'가 틀리며, 올바르게는 양반을 풍자하기 위해 겉으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해야 한다.
④ X —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는 역설법이 사용된 것이 아니다. 또한 벼슬 이름과 한자어의 나열은 자신의 고전 지식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반을 희화화하려는 재담이다. '역설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고전 지식을 자랑하였다'가 틀리며, 올바르게는 언어유희와 익살스러운 나열을 활용하여 양반을 풍자하였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높임 표현의 형식만 보고 말뚝이의 태도를 공손함이나 원만함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그러나 양반들이 화를 내고 말뚝이가 계속 말장난으로 응수하는 맥락을 보면 실제 기능은 예우가 아니라 조롱과 풍자이다. ④는 벼슬 이름과 한자어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역설법이나 지식 자랑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말하기 태도는 높임말 같은 표면적 형식, 발화가 놓인 상황, 화자의 실제 의도, 청자에게 생긴 효과의 순서로 확인한다. 겉으로 공손해도 말의 중의성과 맥락이 상대의 권위를 깎아내리면 풍자와 조롱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겉은 높임말, 속은 조롱이며, 말장난의 효과는 양반 풍자와 상황 주도이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정수는 커피보다 녹차를 더 좋아한다.
② 호승이도 그 정도는 할수 있다.
③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른다.
④ 하루내지 이틀만 기다려 보아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며, '내지'도 앞뒤 말과 띄어 쓴다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사: 명사류 뒤에 붙어 문법적 관계나 뜻을 더하는 말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 명사: 앞말의 꾸밈을 받아 쓰이는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내지': '얼마에서 얼마까지' 또는 선택의 뜻을 나타내며, 앞뒤 말과 띄어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보다'는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 '커피'에 붙여 '커피보다'로 쓴다.
② X — 틀린 표현은 '할수'이다. '수'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할 수'로 띄어 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높은데서 낮은데로'이다. 여기서 '데'는 장소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로 쓴다. '서'와 '로'는 조사이므로 '데'에 붙인다.
④ X — 틀린 표현은 '하루내지'이다. '내지'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또는 선택의 뜻을 나타내며, '하루 내지 이틀'로 앞뒤 말과 띄어 쓴다.

오답 포인트

조사는 짧은 형식어라서 무조건 띄어 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①의 '보다'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반대로 ②의 '수'와 ③의 장소를 뜻하는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이 조사인지 의존 명사인지 먼저 확인한다. 조사는 앞말에 붙이고,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내지'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또는 선택의 뜻으로 쓰일 때 앞뒤 말과 띄어 쓴다.

암기 포인트

조사 '보다'는 붙이고, 의존 명사 '수·데'는 띄어 쓴다. 범위나 선택을 나타내는 '내지'도 앞뒤 말과 띄어 쓴다.

NoteBase

문 15. 괄호 안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 자신의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문화는 (　　)에 불과합니다. 다른 일이나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문화 또한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① 일석이조(一石二鳥)
② 사상누각(沙上樓閣)
③ 설왕설래(說往說來)
④ 동병상련(同病相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문맥에 맞는 사자성어를 고르는 문제이다. 문화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내용과 사상누각의 뜻을 연결해야 한다.

핵심 개념

사상누각(沙上樓閣)은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기 어려운 일이나 사물을 비유한다. 제시문은 우리 자신의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문화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고 했으므로 사상누각이 가장 알맞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일석이조(一石二鳥)는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제시문은 하나의 행동으로 두 이익을 얻는 상황이 아니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일석이조'는 '사상누각'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사상누각(沙上樓閣)은 기초가 약하여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일을 비유한다. 자기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문화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제시문의 내용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③ X — 설왕설래(說往說來)는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뜻한다. 제시문에는 논쟁이나 말다툼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설왕설래'는 '사상누각'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동병상련(同病相憐)은 같은 처지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기고 이해한다는 뜻이다. 제시문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사이의 동정을 말하지 않으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동병상련'은 '사상누각'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다른 일이나 물건들과 마찬가지로'라는 표현만 보고 서로 비슷한 처지를 뜻하는 동병상련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판단의 핵심은 바로 뒤의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이므로, 약한 기초를 비유하는 사상누각을 골라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뒤에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핵심어를 먼저 찾는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 ‘기반이 약하다’, ‘오래가기 어렵다’가 함께 나타나면 사상누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상누각은 ‘모래 위 누각’, 곧 기초가 약한 일이다.

NoteBase

문 16. 밑줄 친 단어의 바꿔 쓰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무실의 분위기를 바꾸다. (→ 교환하다)
② 치수가 큰 신발로 바꾸다. (→ 변경하다)
③ 이사회에서 사장을 바꾸다. (→ 경질하다)
④ 내일의 계획을 바꾸다. (→ 전환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따라 여러 뜻으로 쓰이는 '바꾸다'를 의미가 더 구체적인 낱말로 적절하게 바꾸어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바꿔 쓰기는 문장 속 대상과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원래 뜻을 그대로 유지하는 낱말을 고르는 것이다.
교환하다는 서로 주고받거나 다른 물건으로 대신한다는 뜻이고, 변경하다는 정해진 내용이나 상태를 달리한다는 뜻이다. 전환하다는 방향·상태·방침 등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뜻이며, 경질하다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교환하다'는 물건 등을 서로 주고받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할 때 쓰므로 사무실의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사무실의 분위기를 전환하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X — 치수가 맞지 않는 신발을 다른 신발로 바꾸는 상황에는 '변경하다'보다 '교환하다'가 알맞다. '치수가 큰 신발로 교환하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O — '경질하다'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는 뜻이므로, 이사회에서 사장을 바꾼다는 문맥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④ X — '전환하다'는 방향이나 상태를 다른 쪽으로 돌릴 때 주로 쓰며, 정해 둔 계획의 내용을 달리한다는 문맥에는 어색하다. '내일의 계획을 변경하다' 또는 '내일의 계획을 수정하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의 '분위기'만 보고 변화의 뜻을 막연히 떠올리거나, ④의 '계획'을 방향 전환과 혼동하기 쉽다. 바꿀 대상이 사람인지, 물건인지, 계획이나 분위기인지에 따라 알맞은 낱말이 달라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바꾸다'의 대상을 먼저 확인한다. 직위의 사람을 바꾸면 '경질하다',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바꾸면 '교환하다', 계획의 내용을 달리하면 '변경하다·수정하다', 분위기나 방향을 돌리면 '전환하다'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사람은 경질, 물건은 교환, 계획은 변경·수정, 분위기·방향은 전환으로 구별한다.

NoteBase

문 17.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쳐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면 안 된다.
→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할 뿐이다.

② 나는 결코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 나는 결코 고향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③ 그는 비록 가난하면서 행복했다.
→ 그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행복했다.

④ 철수는 밥을 거의 먹었다.
→ 철수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특정 부사어가 요구하는 서술어의 형태를 알고, 고쳐 쓴 문장에서 그 호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문장에 쓰인 부사어의 의미가 뒤의 서술 표현과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는 관계이다. '반드시'는 보통 '-아야 한다'와, '결코'는 '않다·없다'와 같은 부정 표현과, '비록'은 '-지만·-더라도·-ㄹ지라도'와 같은 양보 표현과 호응한다. '거의'가 '조금도 하지 못한 정도'를 뜻할 때에는 부정 표현과 호응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반드시'를 그대로 두고 서술어를 '일치할 뿐이다'로 바꾼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드시'가 당위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려면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결코'는 부정을 강조하는 부사이므로 부정 서술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③ O — '비록'은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ㄹ지라도'와 호응하므로 '그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행복했다.'라는 수정이 적절하다.
④ O — 여기서 '거의'는 밥을 먹은 양이 매우 적다는 뜻이므로 부정 서술어 '먹지 않았다'와 호응한다. 따라서 '철수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라는 수정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의 '-ㄹ 뿐이다'도 문장 끝맺음으로는 가능해 보여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판단 대상은 문장의 완결성 자체가 아니라 부사어 '반드시'와 서술어의 의미상 호응이며, '반드시'의 당위 의미에는 '-아야 한다'가 맞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사어를 먼저 표시한 뒤 뒤따르는 서술어가 그 부사어의 의미를 완성하는 표현인지 확인한다. 특히 '반드시-아야 한다', '결코-지 않다', '비록-지만/-더라도', '거의-지 않다'의 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반드시-아야 한다, 결코-지 않다, 비록-지만/-더라도, 거의-지 않다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18.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봉투에 우표를 붙인 후 편지를 부쳤다.

②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③ 몇 문제나 맞혔는지 답안과 맞추어 봐라.

④ 생선을 조리며 혹시라도 태울까 봐 마음을 졸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따라 소리가 비슷한 단어와 어미를 올바르게 구별하여 쓰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든지'는 여러 대상 가운데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선택의 어미이다. '-던지'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거나 그 정도가 매우 심했음을 나타낼 때 쓰인다.
'붙이다'는 서로 닿아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이고, '부치다'는 편지나 물건을 보내는 일 등에 쓰인다.
'맞히다'는 답을 옳게 알아내는 것이고, '맞추다'는 둘 이상의 대상을 서로 비교하거나 맞게 하는 것이다.
'조리다'는 음식에 양념을 넣고 국물이 줄어들도록 끓이는 것이고, '졸이다'는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 뜻으로 쓰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우표는 봉투에 떨어지지 않게 '붙이고', 편지는 우편으로 '부치므로' '우표를 붙인 후 편지를 부쳤다'는 표현이 옳다.
② X — '배던지 사과던지'의 '-던지'가 틀렸다. 배와 사과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므로 '배든지 사과든지'로 고쳐야 한다.
③ O — 문제의 정답을 옳게 알아내는 것은 '맞히다'이고, 자신의 답과 답안을 비교하는 것은 '맞추다'이므로 두 단어가 모두 알맞게 쓰였다.
④ O — 생선을 국물이 줄도록 끓이는 것은 '조리다'이고, 걱정하며 마음을 쓰는 것은 '마음을 졸이다'이므로 두 단어가 모두 알맞게 쓰였다.

오답 포인트

②의 '-던지'와 '-든지'는 발음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경우가 아니라 배와 사과 중 선택하는 상황이므로 '-든지'를 써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택이나 무관의 뜻이면 '-든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뜻이면 '-던지'로 판단한다. 소리가 비슷한 동사는 문맥을 짧은 뜻으로 바꾸어 확인한다. 붙게 하면 '붙이다', 보내면 '부치다', 답을 알아내면 '맞히다', 서로 비교하면 '맞추다', 음식을 끓이면 '조리다', 마음이 초조하면 '졸이다'이다.

암기 포인트

선택은 '-든지', 회상은 '-던지'이다. 편지는 부치고 우표는 붙이며, 답은 맞히고 답안과 맞추며, 생선은 조리고 마음은 졸인다.

NoteBase

문 1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나는 것은?

① 압구정 – Apgujeong
② 낙동강 – Nakdonggang
③ 독립문 – Dongnimmun
④ 신라 – Sinla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음화와 유음화처럼 표기에 반영하는 음운 변화는 실제 발음에 따라 적는다. 반면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원래 자음에 대응하는 로마자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압구정'은 [압꾸정]으로 발음되지만 된소리되기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Apgujeong으로 적는다.
② O — '낙동강'은 [낙똥강]으로 발음되지만 된소리되기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Nakdonggang으로 적는다.
③ O — '독립문'은 비음화가 일어나 [동님문]으로 발음되므로 발음을 반영하여 Dongnimmun으로 적는다.
④ X — '신라'는 유음화가 일어나 [실라]로 발음된다. 틀린 표현은 Sinla이며, 올바른 표기는 Silla이다.

오답 포인트

모든 발음 변화를 로마자 표기에 똑같이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①이나 ②를 고르기 쉽다. 이 문제의 함정은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지만 비음화와 유음화는 반영한다는 차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 표준 발음을 확인한 뒤 음운 변화의 종류를 가린다. 된소리되기이면 원래 자음대로 적고, 비음화나 유음화이면 변화된 발음을 로마자로 옮긴다.

암기 포인트

된소리는 미반영, 비음화·유음화는 발음 반영이다. 신라[실라]는 Silla이다.

NoteBase

문 20. 밑줄 친 ㉠의 뜻풀이로 옳은 것은?

> "요놈, 괘씸한 추위란 놈 같으니, 네가 지금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마는, 어디 내년 봄에 두고 보자."
> 하고 벼르더란 이야기가 전하지마는 이것이 옛날 남산골 '딸깍발이'의 성격을 단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다.
>
> – 이희승, 「딸깍발이」 –

① 오랫동안 앓고 있어 고치기 어려운 병
② 기운이나 힘 따위가 누그러들지 않음. 또는 그 기운이나 힘
③ 괴로운 심정이나 사정
④ 몹시 어렵고 힘들게 싸우거나 일함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나타난 관용 표현 '기승을 부리다'의 뜻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승'은 기운이나 힘 따위가 누그러들지 않는 상태 또는 그러한 기운이나 힘을 뜻한다. '기승을 부리다'는 세력이나 기운이 매우 강해져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인용문에서는 추위가 매섭게 이어지는 상황을 사람처럼 표현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오랫동안 앓고 있어 고치기 어려운 병'은 '고질'의 뜻이다. '기승'은 기운이나 힘 따위가 누그러들지 않는 상태 또는 그러한 기운이나 힘을 뜻한다.
② O — '기운이나 힘 따위가 누그러들지 않음 또는 그 기운이나 힘'은 '기승'의 뜻이다. 추위가 심하게 계속된다는 인용문의 문맥과도 맞는다.
③ X — '괴로운 심정이나 사정'은 '고충'의 뜻이다. '기승'은 누그러들지 않는 기운이나 힘을 뜻한다.
④ X — '몹시 어렵고 힘들게 싸우거나 일함'은 '고투'의 뜻이다. '기승'은 세차게 이어져 수그러들지 않는 기운이나 힘을 뜻한다.

오답 포인트

선지들은 '고질', '기승', '고충', '고투'처럼 형태가 비슷한 한자어의 뜻을 섞어 놓았다. ㉠ 뒤의 '부리다'와 추위가 매섭게 계속되는 문맥을 함께 보면 ②를 고를 수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단어만 보지 않고 앞뒤 상황과 함께 쓰인 말을 확인한다. '기승을 부리다'가 날씨·질병·세력 등에 쓰이면 그 기운이 강하여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뜻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질은 고치기 어려운 병, 기승은 누그러들지 않는 기운, 고충은 괴로운 사정, 고투는 힘겨운 싸움이나 일이다.

NoteBase